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신생직업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준비해 나가기 전에 미래 세상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 분야가 미래에 각광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라져 갈지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미래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15년 후의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도저히 15년 후의 직업 변화를 떠올리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전국학부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교육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를 참고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핵심 역량과 그 역량을 키우는 교육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www.parents.go.kr) >
e도서관 > 센터발간자료 > 교육자료 >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읽기 센터 교육자료 바로가기 ▶

센터 교육자료 바로가기 ▶



글쓰기는 자녀의 꿈과 상상을 남기는 방법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려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리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과 생각은 한번 지나가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자녀의 생각을 정리해 주고 기록으로 남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 코칭 전문가 엄명중 씨는 그의 책에서 “문서화된 약속으로 진로계획을 하라”고 권합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란 것이죠.

구체적인 미래 상상, 편지를 써 보세요

이제 막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 첫 번째 진로 계획 기록으로 ‘15년 후의 나에게 편지 쓰기’를 추천합니다. 지금의 원대한 꿈과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쉽습니다. 자녀가 스스로에게 쓴 편지는 진로를 향한 초심과 다짐을 되새기도록 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계속해서 실천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쓰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자녀가 스스로 얼마나 변하고 성장했는지 점검하는 길잡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10대의 내가 30대의 나에게 쓰는 편지

고등학생 자녀는 15년이 흐르면 30대가 됩니다. 자녀와 함께 15년 후의 나에게 편지를 쓰면 학부모에게도 꿈을 위해 노력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30대의 자신에게 진지하게 말을 걸며 편지를 쓰도록 학부모의 10대, 20대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 보세요. 학부모님은 15년 전, 어떤 꿈을 꾸고 있었나요? 그리고 15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요? 학부모의 담담한 편지 옆에 자녀도 15년 후의 자신에게 편지를 적어 봅시다. 자녀는 앞으로 15년 동안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함께 상상해 주세요.



편지 쓰기 전 생각해 볼 거리

15년의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저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이나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진로 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로 관련 도서를 읽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꿈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미래 직업인이 된 이후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상상을 통해 15년 후의 나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학부모가 15년 전의 나에게

자녀가 15년 후의 나에게
